

AUTHOR 황대우

TITLE 교제로서의 예배와 삶
-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예배 이해 -

IN 개혁신학과 교회
vol.14, no.1 통권 vol. 15 (August, 2003): 147-167

▣ 역사신학

교제로서의 예배와 삶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서의 예배 이해

황대우(역사신학·강사)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지대하다. 또한 미국의 영향으로 새로운 예배 형태들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예배 형태의 대부분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역사적인 예배 형태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수정 내지는 재창조에 가깝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땡 잡는 것이 댕”라는 식의 양적 교회 성장 일변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신교 교회들이 청중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예배 형식을 바꾸는 일은 때로 그들의 예배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다 건전한 예배 개혁은 예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발전된 개신교 예배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이 시대 한국교회 현실에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라 볼 수 있다. 마르틴 부씨는 개신교 예배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초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개혁과 교회의 예배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예배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기초한 예배 개혁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1. 마르틴 부씨¹⁾의 생애와 작품²⁾

스트라스부르크³⁾의 종교개혁가 부씨는 1491년 11월 11일에 엘자스(Elsaß) 지방의 쉘레트슈타트(Schlettstadt=불어명은 셀러스타 Sélestat)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통제조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산파였다. 부씨는 만 6세부터 만 15세 때까지 쉘레트슈타트에 있는 당대 유명한 라틴어학교에서 교육 받았는데, 그 학교는 이미 야콥 뵘펠링(Jacob Wimpfeling)과 같은 인문주의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는 계속 공부하고 싶었으나, 재정문제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 차선책인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1507년에 수도원에 입문하여 1년의 예비과정을 거친 다음, 1508년에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함으로 부씨는 도미니칸 수도사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그가 기대했던 많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학작품들 대신에 중세 스킴라신학의 거장들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피터 롬바르두스(Peter Lombardus)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대주교가 살고 있던 도시인 마인츠(Mainz)에서 1년 정도 사제

로 봉사하다가, 1517년 부씨는 공부에 대한 가능성과 신학박사학위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 있는 수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그는 후에 마르틴 루터의 충실한 친구와 추종자가 될 요하네스 브렌츠(Johannes Brenz)로부터 처음 헬라어를 배웠고, 그 덕분에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 고전작품들을 읽게 되었다. 거기서 부씨는 당대의 유명한 네덜란드 로페르담(Rotterdam) 출신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의 작품들을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씨는 1518년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어거스틴 수도회 종단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처음 그를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은 부씨의 생애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강변한 루터의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은 장차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될 브렌츠와 부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트라스부르크의 도미니칸 수도사 마르틴은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사 마르틴을 따라 수도사에서 종교개혁가로 전향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부씨는 루터의 추종자로서 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탐독했다. 이 당시 부씨는 에라스무스와 루터 두 사람 모두 교회개혁의 선구자요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이 두 사람처럼 교회개혁의 대열에 서고자 했지만, 문제는 평생 수도사로 살겠다고 맹세한 자신의 수도원 서약이었다. 부씨는 스스로 그 서약을 파기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마인츠 대주교인 알브레흐트(Albrecht)를 모시고 있던 독일 남부 도시인 하게나우(Hagenau) 출신이자 후에 부씨와 더불어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가 될 볼프강 카피토(Wolfgang Fabricius Capito=독어명은 쾨펠 Köpfel, 불어명은 까삐똥 Capiton)에게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1521년 4월 29일에 자신의 도미니칸 수도원 서약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된 부씨는 수도원을

1) Martin Bucer. Bucer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 Butzer의 라틴명인 Bucerus에서 온 것이다.

2)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가에 대한 훌륭한 전기로는 영어로 된 헤스팅스 엘스(Hastings Eells)의 책과 독어로 된 마르틴 그레샷트(Martin Greschat)의 책을 들 수 있다.

3) 종교개혁기인 16세기 당시에는 독일 영토였으며 Strassburg라 표기되었으나, 오늘날은 프랑스 도시로서 Strasbourg라 불리운다. 이 도시의 라틴명은 Argentoratum, Argentina, Argentum, Argentaria, Argentoria, Strateburgis 등으로 기록되고 불리었다.

떠났으나, 여전히 사제였으며, 1522년 여름에 수녀였던 엘리자벳 질버 아이즌(Elisabeth Silbereisen)과 결혼했다.

부씨는 1년간 팔츠(Pfalz=영어명은 팔라티네이트 Palatinate)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Friedrich=영어명은 프레더릭 Frederick)의 궁정목사로 사역한 후, 바이센부르크(Weissenburg)에서의 목회사역을 거쳐, 1523년 카피토 및 카스파르 헤디오(Caspar Hedio)와 더불어 스트라스부르크에 정착하게 되는데, 1524년 2월 31일에 성 토마스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한 후, 5월 31일에 단독 목사로 선출된다.⁴⁾ 당시 스트라스부르크는 인문주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이 도시는 구텐베르크(Gutenberg)가 인쇄술을 발명한 곳이고, 16세기에는 이곳에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책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어 남부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부씨는 거기서 자신의 개혁 열정을 불태웠으나, 그 불꽃은 그곳에서 보다는 오히려 제네바(Geneva=원명은 쥐네브 Genève)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는 슈말칼트(Schmalkald) 전쟁에서 개신교 동맹군의 참패로 자신의 도시가 임시안(Interim)을 수용했을 때, 그것에 승복하지 않자 1549년에 그 도시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었다. 부씨는 25년간 공들여 세운 개혁의 탑이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가 초청한 영국의 캠브리지로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그는 캠브리지에서 왕립 교수로 가르쳤으나, 3년을 채 넘기지 못한 1551년에 죽고 말았다.

16세기 당시 부씨의 명성은 목회자와 주석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운동의 대가로 널리 알려졌으나, 그 이후 오랫동안 그의 이름은 잊혀졌고, 그의 작품은 역사 속에 묻혀 버렸다. 20세기에 칼빈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씨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최근 세계교회연합운동과

더불어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의 작품들은 스트라스부르크의 위대한 종교개혁 연구가 프랑수와 방델(François Wendel)의 노력으로 결성된 국제부씨위원회(Die Internationale Bucer-Kommission)를 통해 부활되기 시작했는데, 원작품의 출판연도 순으로 편집되어 지금까지 20권 넘게 출판되었다. 독일어 작품의 출판은 독일 귀터슬로의 게르트 폰 출판사(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와 프랑스 파리의 프랑크스대학 출판부(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가 연합하여 맡고 있으며, 라틴어 작품과 편지들은 네덜란드의 브릴(E. J. Brill)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수많은 부씨의 저술 가운데 주석 이외에 대표적인 저술 세 편을 꼽으려면, 부씨 연구가들은 1523년에 출판된 소논문, '아무도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Das ym selbs niemant, sonder anderen leben soll, und wie der mensch dahyn kummen mog)와 1538년에 출판된 '참된 목회와 바른 목회사역에 관하여: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세워지고 시행되어야 하는가' (Von der waren Seelsorge und dem rechten Hirtendienst, wie derselbige in der Kirchen Christi bestellet und verrichtet werden)와 1551년에 기록되었으나 1557년에야 비로소 출판된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하여' (De regno Christi)를 들 것이다. 첫 번째 책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에 관한 책이고, 두 번째 책은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분석한 책이며, 세 번째 책은 교회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상술한 책이다. 이 세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부씨 신학의 정수는 삼위하나님 -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속주요 왕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창조원리와 구속원리의 집행자이신 성령 하나님 - 의 창조와 구원사역의 목적이 '봉사' 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4) Eells는 부씨가 스트라스부르크에 등록된 첫 복음주의 목사였다고 한다. 그의 책 p. 31 참조.

피조된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원리로서의 '섬김'은 구속원리로서의 '섬김'을 통해 회복된다. 부씨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봉사'와 '섬김'은 죄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된 '진정한 교제의 회복'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다. 즉 바로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교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교제가 바르게 정립된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교제의 회복이란 개념은 부씨 신학의 핵심적 요소이며, 그의 예배론에서도 지배적인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2. 종교개혁 원리와 예배개혁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교리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교회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신학을 위해 획기적인 신학 용어들을 만들어 내지도 않았고,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교회제도

5)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창조 되었을 때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지 말해야 한다. 즉 간단히 말해서 신앙만이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만물이 그를 통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그를 통해 다시 그것들이 창조되었던 그 첫 질서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즉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는 자신의 피를 통해 그들의 성부의 속죄와 은혜 속에 회복시키셨고, 나아가 만물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성령을 통해 첫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하셨다.]' MBDS 1, 59-60: 'Wie wir aber zu solchem leben wider kummen mogen, das wir, wie wir erstlich geschaffen seind, nit uns selb, sonder den andern zu nutz und gott zu lob leben, ist nun zu sagen. Und das ichs mit kurzem anzeyg, bringt uns solchs allein der Glaub zuwegen. Dann Christus Jhesus unser heyland ist der, durch den wie alle ding geschaffen seind, also hat gott gefallen durch yn auch alle ding wider zu bringen und in ire erste ordnung, in die sye geschaffen seind, stellen. ... Und das, so sye glauben in Christum, das ist, im gantzlich vertruwen, er hab sye durch sein blut wider in sun und gnad des vatters gestelt und also folgend durch sein geist wider auch gegen allen creaturen erstlicher ordnung nach, ...'

내지는 교회법을 창안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을 수용하는 개혁이지 이전의 모든 중세적인 것들을 모조리 거부하는 혁명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기독교교회건설운동(the movement for the edification of the Christian Church)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교회건설운동은 단순히 문예부흥운동의 기치인 '원천으로' (ad fontes)라는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란 신학적인 교리면에서나 교회적인 신앙생활면에서 초대교회에로의 회복운동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초대교부들의 신학과 초대교회의 생활은 성경보다 우선된 개혁원리가 아니었다. 제일개혁원리는 성경 자체였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의 원리이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이것을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한 비역사적이고도 지극히 주관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 역사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존재한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과 초대교회의 생활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교회가 교회 역사를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반면에 재세례파교도들은 그 교회 역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할 잘못된 로마교회의 역사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교회가 교회를 역사의 중심과 주체로 삼았던 반면에, 재세례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질적으로 새로운 교회, 즉 하나님의 완전한 지상교회 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두 그룹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적 교회의 연약성과 타락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 속에 있는 그 지상교회가 아무리 타락한 모습이라 해도 교회와 역사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의 교회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자신의 구원의 기관

인 그 지상교회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타락한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개혁을 통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의 출발점이다.

종교개혁가들의 예전(liturgia) 개혁은 바로 이러한 교회개혁의 원리에 따른 교회건설(aedificatio ecclesiae)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⁶⁾ 예전 개혁의 중요한 종교개혁가들로는 루터, 쾰링클리, 부셔, 칼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제안한 예전 개혁은, 마치 그들이 중세의 인간중심적인 공로신학을 거부하고 성경의 신중심적인 은혜신학을 회복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예배에서 공로신학적인 희생제사(sacrificium missae)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hostia laudis)라는 점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친다.'⁷⁾ 여기서 제물로 바쳐지는 우리의 몸은 '살아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다.⁸⁾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이다.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를 전인적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수 있는데, 즉 그것은 단지 정해진 시간에 드러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회적인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매일 변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매일 우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

6) 1세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부셔는 기독교 예배를 교회건설로 정의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참고. H.O. Old, 8.

7) MBDS 1, 235: 'Aber das wir, wie er sich selb einmal geopffert hat, auch wir unsere leyb zum offer begeben mit den oppferen des lobs und der dancksagung.' 참고. MBDS 11/1, 285.

8) MBDS 1, 61: '... das wir unser leib begeben sollen zum offer, das do lebendig, heylig und gott wolgefellig ist, ...'

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⁹⁾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산제사로서의 예배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즉 성령이시기 때문이다.¹⁰⁾

이와 같은 제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드러지는 것이다.¹¹⁾ 예배개혁은 중세의 사제중심주의를 깨뜨린 '만인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대원리와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다. 참된 기독교 예배는 대제사장이시요 친히 제물이 되신 독생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써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¹²⁾ 여기서 기독교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corpus unum)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예배와 삶의 일치는 개혁교회의 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 마르틴 부셔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가장 독특한 예배 원리이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셔의 예배신학은 지극히 윤리적이다. 부셔 신학 전반에 걸친 지배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이와 같은 윤리적 특성¹³⁾은 이미 부셔의 첫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분명한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

9) MBDS 4, 144: 'Christus ist ein mal gestorben, unsers wares osterlamml, und vertritt uns aber vor dem vatter taglich. So sollen ouch wir unser eygen lyb und danck ouch taglich uffopfern.'

10) MBDS 4, 144: 'Welches alles in uns der geist Christi Jesu, unsers einigen und ewigen offerers, würcket.'

11) MBDS 1, 235: 'Von solchen offerern, das ist von allen woren Christen, die dan ein geliebte spons Christi seind, ... wir alle eins in Christo und gottes sacerdoten, das ist offerer sein, ...'

12) '그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바쳐드릴 것이 없다.' MBDS 1, 217: '... in dem [= Christus] wol wir gott nicks auffopferen, dann uns selb, ...'

13) 부셔의 윤리적 신학사상에 대해서는 칼 코흐(Karl Koch)의 책 참조.

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들 자신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의 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먼저 창조 시에 그와 같은 질서를 세우셨고, 재 창조 시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질서를 파괴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¹⁴⁾

3. 부써 예배론의 원리

부써는 자신의 예배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했다.¹⁵⁾ 그는 예배 구성요소를 크게 세 가지, 즉 기도와 찬송, 성경봉독 및 해설, 성찬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분류 근거를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행 2:42절에서 찾는다.¹⁶⁾ 부써는 '사도의 가르침'을 설교로 이해하고, '교제'를 다양한 교회적 교제로 받아들이며,¹⁷⁾ '떡을 떼'를 성찬으로 해석

14) MBDS 1, 50: 'Uß disem allem ist nun clar, das ym selb niemant leben soll. seitenmal gott alle ding geschaffen hat, das sye nit ynen selb, sonder andern zu gut dyenen und instrument gottlicher gutigkeit, die in allen dingen außzuspreyten, sein sollen. weiche ordnung der herr erstlich in der schopfung eingesetzt hat und würt sye wider bringen in der welt verneuerung, so die sünd, welche dise ordnung etwas zerrüttet hat, gar abthon und das reich gottes wider bracht würt.'

15) 이것은 물론 부써가 초대교부들의 예전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의 예전 신학의 일차적인 자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참조. MBDS 1, 211, 245, 247; H. O. Old, 3-4. 맥키는 종교개혁 당시 로마교 신학자들도 루터파와 재세례파 지도자들도 아닌 개혁파에 속하는 몇몇 종교개혁자들만이 이 본문을 초기 신약교회의 예배에 대한 묘사로 이해했다고 지적한다(참고. E. A. McKee, 74). 맥키는 자신의 책에서 행 2:42절을 예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삐에르 비레와 존 칼빈, 그리고 부써를 든다. 그녀는 이 세 개혁가 모두 이 본문 해석할 때, 라틴역본인 불가타 성경에 따라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헬라어 성경에 따라 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즉 그들은 그 구절이 '사도의 가르침, 떡의 떼와 교제, 기도'라는 삼중적 구조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 기도'라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맥키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써가 항상 이 구절을 사중적인 구조로만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의 삼중적인 구조에 대한 부써의 인용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MBOL 1, 33.

한다.¹⁸⁾ 그는 여기서 예배로서의 성찬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배운다. 즉 사도의 가르침인 설교와 떡을 떼는 행위인 성찬은 한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이때 설교는 반드시 성찬에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 수세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려주는 설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즉 설교를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이다. 부써에게 있어서 설교와 성찬은 예배의 기본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지상교회는 설교와 성찬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말씀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성찬공동체로 불리운다. 부써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성찬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정의하면서 바로 이 두 말씀을 통해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특별히 성찬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가 영적 음식이요 영적 음료이기 때문에, 신자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그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보았다.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와 가시적 말씀으로서의 성찬은 신적 교제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찬을 통해 친히 불러 모으신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과 성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만나는 화

17) 부써는 이 본문에서 '교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이 교제를 본질적으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에게 있어서 교회는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 속에는 '구제', '성찬', '치리' 등 모든 교회적 교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부써가 이 교제를 '구제'와 '치리'로 이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E. A. McKee, 76-77 참조. 그가 그것을 '성찬'의 교제로 이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MBOL 1, 33 참조.

18) 네 가지 요소 즉,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다. 나머지 세 요소는 모두 이 사도의 가르침에 의존적이다. 그런데 성찬 외에 나머지 세 요소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다.

해와 교제의 장이다. 이 화해와 교제의 주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인 영이시오,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교통의 영' (Spiritus communicationis)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수직적 교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과 성찬으로서의 예배는 단순히 이와 같은 수직적 교제만을 의미하거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수직적 교제는 반드시 수평적 교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를 머리로 모신 모든 지체 상호 간의 교제를 낳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몸에 연합된 지체들을 자신의 백성이라 인정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이다. 성도들 간의 수평적 교제는 바로 이 수직적 교제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전자는 항상 후자에 의존적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에 선행하며 따라서 후자는 항상 전자에 의존적인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지 않는 독립된 성도 간의 교제란 존재할 수 없으며, 수평적 교제를 낳지 않는 수직적 교제 역시 상상할 수 없다. 예배는 바로 이 두 종류의 교제가 가장 선명하게 가시화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부씨에게 있어서 예배공동체는 교제공동체인 교회의 중심개념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수직적이고도 수평적인 교제로서의 예배는 '누림'과 동시에 '나눔'의 장이다. 예배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나눔 공동체'이다. 그러나 부씨에게 있어서 영적인 은사는 무질서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누어져야 하며, 육적인 재산의 분배 역시 공동재산의 개념이 아닌, 가난한 형제를 돕는 구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부씨의 나눔 공동체 개념은 제세례파의 그것과 구분된다.

예배공동체는 나눔 공동체이므로 영적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제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 잡힌 분배개념은 나눔 공동체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나눔 공동체로서의 예배공동체는 단순히 주일 하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일 이루어 가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과정이요 목표이다.

판 더 펠은 마르틴 부씨의 예배 개념들이라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부씨 예식문의 원천은 성경(the Bible)이요, 두 번째 기초는 공동체적 의미 즉 윤리(the sense of community, ethics)이며, 세 번째 기초는 성령의 사역(the operation of the Holy Ghost)이고, 네 번째 기초는 기독교적 자유(Christian liberty)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¹⁹⁾ 부씨의 예배신학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정당한데, 그것은 부씨가 예배의 원리와 내용을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배공동체를 믿음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제공동체로 이해함으로써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적 윤리의식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또한 성도들의 예배와 삶 모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예배형식에 있어서 통일된 획일적인 것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질 수 있다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4. 부씨 예전 개혁의 의의

16세기 제네바 예배문을 전공한 맥스웰은 부씨 예전 개혁의 의미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니케아 신경의 대안으로 사도신경이

19) G. J. van de Poll, 15-17.

제시되고, 로마 교회의 축도 대신 아론의 축도가 선언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중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일어 운율의 시편과 찬송이 나타난다. 때때로 교대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주의 만찬', '목사', '성찬대'와 같은 용어들이 '미사', '사제', '제단'과 같은 용어들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예배를 구성하고 있던 라틴어 명칭들도 점차 독일어 명칭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서신서와 복음서는 더 이상 과거의 예배 성구집에 따라 선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봉독되었고, 훨씬 길게 봉독된다. 설교는 정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종종 봉독된 각 본문 가운데 하나가 설교본문이 되었다.²⁰⁾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스트라스부르크의 신학자는 일찍이 예배 개혁에 관한 자신의 첫 논문인 '주의 성찬 갱신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기원' (Grund und ursach auß gotlicher schrifft der neuwerungen an dem nachtmal des herren, 1524)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회중들이 일요일에 회집할 때, 봉사자는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도록 권면하고, 온 회중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신자들에게 죄의 사면을 선언한다. 그러면 온 회중은 짧은 시편이나 찬송가를 노래한다. 그런 다음 봉사자는 짧게 기도한 다음, 사도 서신 가운데 일부를 회중에게 낭독하고 그것을 매우 짧게 설명한다. 그러면 회중이 다시 십계명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노래한다. 그 다음 사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설교를 시행한다. 그런 다음 회중이 신앙고백문(사도신경 등)을 노래한다. 그 다음 사제는 정부와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참석한 회중들을 위해 기도하

20) W. D. Maxwell, 91: '...; the Apostles' Creed is given as an alternative to the Nicene; the Aaronic Blessing may be said instead of the Roman Blessing; psalms and hymns in German metre appear, providing the people with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ervice; such phrases as, 'Lord's Supper', 'Minister', 'Holy Table' are beginning to replace 'Mass', 'Priest', 'Altar', though there is a good deal of interchanging for some time; the Latin titles for the parts of the service are gradually replaced by German titles; the Epistles and Gospels are no longer selected according to the old lectionaries, but are read in course and are of greater length; sermons are regularly preached, sometimes one on each lection; ... 한글 번역서, 126 참고. 이 본문에 대한 정장복 교수의 번역은 신중하지 못하다.

되, 그리스도의 죽음을 효과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증가하도록 기도한다. 그는[= 사제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받기를 원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도말하고 기꺼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진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권면한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버지께 바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발생하는 바로 그것이다. 권면 후에 그는 바울과 더불어 세 복음서 기자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것(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고전 11:23-25)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관한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의 빵과 잔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도 그것을 취한다. 곧이어 회중은 다시 찬송을 부른다. 그런 다음 봉사자는 짧은 기도로 성찬을 마무리하고, 백성에게 축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돌려보낸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을 단지 주일에만 거행하는 방법과 관례이다.²¹⁾

부씨의 이와 같은 예배신학은 개혁교회 예전의 기원이 되는 스트라스부르크 예배문²²⁾과 제네바 예배문²³⁾의 기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예배형식 전부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부씨의 예배문은 형식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라 중세 예배의 두 형태인 prone²⁴⁾과 Missa²⁵⁾를 종합하여 보다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부들의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그것은 본질적인

21) MBDS 1, 246-247: 'So am Sonnetag die gemein zusammenkomt, ermant'sye der diener zur bekantnuß der sunden und umb gnad zu bitten und beichtet gott anstat gantzer gemein, bit um gnad und verkündt den glaubigen abloß der sünden, auff das singt die gantz gemein etlich kurtz psalmen oder lobgesang. Dem nach thut der diener ein kurtz gebett und lisset der gemein etwas von Apostel schriften und verclert dasselbig auff's kürztzest. Daruff singt die gemein wider die zehen gebott oder etwas anders, alsdann so verkündt der priester das Evangelion und thut die recht predig, auff die singt die gemein die artickel unsers glaubens, auff das thut der priester fur die oberkeit und alle menschen und besonder fur die gegenwertig gemein ein gebett, in wolchem er bittet umb merung des glaubens und lieb und gnad, die gedechtnuß des tods Christi mit frucht zu halten. Darauff vermanet er die, so

차이를 나타낸다. 즉 중세의 예배를 대표하는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자의 덕을 쌓는 공로가 된다는 개념

mit im das nachtmal Christi haben wollen, das sye solichs zu gedechtnuß Christi also halten wollen, das sye iren sünden abzusterben, ir creütz willig zu tragen, den nächsten in der worheit zu lieben, im glauben gesterckt werden, das dann geschehen muß, wo wir mit glaubigem hertzen erachten, was unmessiger gnad und guthat Christus uns bewisen hat, in dem das er sein leyb und blut am creütz für uns dem vater auffgeopffert hat. Auff die vermanung verkundet er das Evangelion vom nachtmal Christi, wie es die drey Evangelisten Mattheus [26, 26-28], Marcus [14, 22-24] und Lucas [22, 19-20] sampt Paulo 1. Cor. 11 [23-25] beschriben haben. Darauf teilet der priester das brot und den keich des herren under sye und neuset es auch selb. Also bald singet die gemein wider ein lobgesang, demnach beschleüßet der diener das nachtmal mit ein kurzen gebett, segnet das volck und lasset es im friden des herren hingon. Diß ist die weiß und der brauch, mit dem wir nun me das nachtmal Christi auff die Sonnentag allein halten.' 참조. C. Zippert, 228-229. 이 본문의 영어 번역은 Maxwell이 그의 책 100-101에서 제공하고, 한글 번역은 정장복 교수의 번역서, 140에 있다.

22) 스트라스부르크의 1526년 예배문에는 중세의 prone에 해당하는 매일 4번의 말씀 예배(새벽 5시(겨울) 혹은 4시(여름) 미사, 7시 교구교회 설교예배, 8시에 대성당 예배, 4시 쫓 오후예배)와 일요일에는 6번의 예배가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일상 예배는 부씨의 영향으로 차츰 하루 두 번의 설교중심 예배, 즉 각 교구 교회에서의 아침 기도회와 중앙 대성당에서의 저녁 예배로 줄어들었다. 이것 이외에도 매일 신자들에게 성경을 해설하는 성경공부 형식의 모임이 있었다. 기도회와 예배 시작 시간은 년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1528년에는 오전 6시(여름) 혹은 7시(겨울)에 기도회를, 오후 3시(여름) 혹은 2시(겨울)에 예배를 드렸고, 1537년에는 오전 4시(여름) 혹은 5시(겨울)에 기도회를, 오후 4시(여름) 혹은 3시(겨울)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오전 8시에 대성당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일요일에는 대성당에서 오전 기도회가 있고, 각 교구 교회에서는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때 성찬이 시행될 수 있었다. 중식 후에 대성당에서는 교회기도와 시편찬송 위주의 예배가 드러지고, 이것이 끝나면 곧이어 목사가 어린이들에게 교리문답을 상세히 해설하고 가르치는 어린이예배(Kinderbericht)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교구교회에서는 저녁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는 찬송과 기도 위주의 교훈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 때 세례를 거행할 수 있었다. 모든 교구 교회들은 아침저녁으로 성인을 위한 교리문답교육 (gemeyne catechismus)을 일년에 네 번 실시했으며, 이 때 신앙고백문과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 등이 해설되었다. 대부분의 예배들은 교회에 따라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으나, 일요일 오전예배를 위해서는 일정한 예배문 (a prescribed liturgy)이 있었다. 1537-1539년 사이의 스트라스부르크의 주일 오전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 성경본문 낭독 / 죄의 고백 / 죄의 용서에 관한 성경본문 낭독 (주로 뎀전 1:15절 낭독, 마르 요 3:16; 3:35-36a; 행 10:43; 요일 2:1-2 중 하나 낭독) / 사회선언 / 시편송 [혹은 찬송 혹은 자비송 (Kyrie eleyson)과 영광송 (Gloria in excelsis)] / 말씀의 깨달음을 위한 짧은 기도문 / 시편송 / 복음서 설교본문 낭독 및 해설 / 권면 [혹은 사도신경송] /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및 성찬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종결됨) / 성찬 제정 본문 낭독 / 빵을 떼 / 분병분잔 (그동안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Gott sey gelobet) 혹은 다른 찬송이 불림) / 감사기도문 / 아론의 축도. 예배순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F. Hubert, 90-114; G. J. van de Poll, 33-43; W. D. Maxwell, 102-110. 맥스웰은 이 예식서가 칼빈과 스코틀랜드 예식서들의 기원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참고. 그의 책, 101.

23) 칼빈이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온 이후에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했던 제네바 예배문은 기본적으로 부씨의 예배문을 약간 개정해서 사용한 스트라스부르크의 프랑스 피난민 교회 예배문

이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부씨의 예배 개념은 제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단회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개념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기독교 예배를 찬미와 감사의 제사로 정의함으로써 예배행위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공로개념을 거부했다.

부씨의 주일오전 예전이 중세의 예전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설교 중심의 말씀예배와 성찬을 시행하는 성찬예배를 구분하지 않고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대성당에서는 매주 실시하고, 교구교회들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번정도는 실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일오전 예배의 중심이 단지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성찬의 비중 역시 설교 못지않게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씨와 같이 칼빈 역시 제네바 교회를 위해 최소한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했으나, 정부가 제시한대로 년 4회, 즉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의 본래의 도는 실행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부씨와 칼빈이 성찬이 자주 시행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이 성찬을 가시적인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이요, 이 가시적인 말씀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씨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인 설교와 볼 수 있는 말씀인 성찬을 일요일 오전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부씨는 성찬이 사적으로 베풀어지거나 일요일 이외의 날에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장기 투병환자에게는 심방을 통한 개인적인 성찬이 허락되었다.

중세의 예배와 구별되는 또 다른 요소는 죄의 고백과 사회선언에 대

파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 24) '혼화예배' 혹은 '기도회'로 번역될 수 있으며, 성례전이 없는 성경봉독과 도덕적 교훈과 기도 중심의 예배였고 모든 순서는 자국어로 진행되었다. 예배순서는 다양했으나, 대체로 기도/서신서와 복음서 낭독/신앙고백/설교/권면/주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25) '미사'로 번역되며 prone과는 달리 성례전적이고 대부분의 순서는 라틴어로 진행되었다.

한 반응으로써 십계명이 도입되어 노래로 불리워진 것과 말씀예배와 성찬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결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초기의 부써 예배 신학에서 이전에 없었던 십계명이 도입된 것은 획기적이다. 노래하는 것은 부써가 모세의 율법을 죄를 지적하는 기능(funcio accusatoria) 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의 요소(elementum laudatorium)로 간주한 것과 일치한다.²⁶⁾ 스트라스부르크 개혁가의 십계명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출 20:2에서처럼 모세의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시편송은 제네바 개혁가인 칼빈을 거쳐 개혁교회 예배의 전통이 된 시편찬송의 길을 마련하였다. 부써는 시편의 히브리어 본문 원본 회복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독교적 해석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시편을 '성령의 노래들' (the songs of the Holy Spirit)로 보았고, 따라서 가장 기독교적인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⁷⁾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써가 예배 속의 찬송은 그 자체를 위한 독립된 의미를 갖기 보다는 기도와 신앙고백, 십계명 등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생각은 시편의 내용과 신약에 나타나는 찬양의 내용을 고려한 성경적인 기초에 근거한 것이다. 쾰빙글리가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부써는 예배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러 찬송집을 편집했는데, 그는 그 일을 통해 당시 스트라스부르크 교구교회들이 각기 따로 사용하던 찬송집을 통일시키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예배개혁은 그가 예배를 찬미의 제사로 간주했다는 사실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예배 진행이 지나치게 집례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배가 모든 예배 참여자를 위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나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육체적 나눔은 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모금하는 일이었는데, 이 구제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거두어졌다. 그 중 하나는 교회당을 출입하면서 낼 수 있도록 교회당 안이나 교회문 밖에 통을 두어 거두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 순서 중에 주머니를 돌려서 거두는 방법이었다. 이 두 방식 모두 중세에도 존재한 것이었으나, 그 의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중세의 헌물과 헌금이 일차적으로 중세적 공로신학과 연결되어 자신의 덕을 쌓는 공로로 이해되었던 반면에, 부써에게 있어서 구제금이란 나눔 공동체로서의 예배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형제 상호 간에 영적인 것을 나누듯이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단순한 수단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부써는 비록 중세의 성찬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인 'sursum corda' (마음을 들어올려)를 자신의 예전에 남겨 두지는 않았지만, 'sursum corda'의 본래 개념은 그의 성찬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칼빈처럼 부써 역시 이 개념을 빌어 그리스도의 임재를 설명하려고 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감각적인 것들 위로 들어올려져야 하며 천상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은 바로 믿음을 통해 높이 들려진 그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것이다.²⁸⁾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는 비단 성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 신자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상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찬에서 가장 분명하게 재확인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써의 'sursum corda' 개념의 핵심이다.

중세 로마교의 축도 대신에 아론의 축도가 도입된 것도 특이한 점이

26) 물론 이러한 원리가 항상 스트라스부르크 예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거기서 때로 십계명은 노래되기 보다는 사죄의 기도 속에 포함되기도 했다.

27) 참고. H. O. Old, 49.

다. 그러나 부씨의 예전신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가 제시한 이러한 예배순서를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예배순서를 만드는 일은 교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교회의 자유의 영역, 즉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았다. 다만 신약교회의 예배모범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기본적인 원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론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씨의 예배 개혁의 원리와 실체는 그의 교회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상 교회를 통해 자신의 모든 선택된 백성들을 그 몸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몸 안에서 자신과의 수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지속해 가도록 하신다. 부씨는 이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부씨의 예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와 같은 교제 개념이다. 이 교제의 길은 이미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찬미의 제사로 간주했다. 부씨에게 있어서 찬미의 제사인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라는 두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직적이고도 수평적인 교제였다. 이 교제는 단지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씨는 육적인 소유를 분배 역시 그 교제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교회에 가져오는 돈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구약적인 헌금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지역 교회 내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혹은 가난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신약적인 연보 개념이었다. 부씨는 이러한 영적 은사와 육적 소유를 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보았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를 교제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배와 삶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이 오늘날 새로운 예배 형식을 원하는 한국 교회에 고려된다면 보다 건전한 예배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일상적인 삶과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는 한국 교회의 이원론적인 예배관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